

농림수산식품부

▶ 고병원성 A 발생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소재 오리농장과 전북 익산시 망성면 소재 닭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A 의심축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형질형 H5N1)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가위기대응메뉴얼에 따라 발생이전의 위기경보수준인 '관심단계'를 '주의단계'로 격상시키고,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A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한편, 구제역의 경우 이미 '심각단계'가 발령되어 있는 만큼 A 방역을 위해서도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중장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인력지원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H5형이 확인됨에 따라 'A 긴급행동지침'에 의거하여 해당 지자체는 발생농장의 오리 1만수(천안)와 닭 1만7천수(익산)를 사전에 매몰처분했고, 12월 23일~28일간 익산 발생농장에서 닭을 반입한 인근 역학관련 농장의 닭 9만2천수도 사전에 매몰처분 했다.

현재는 발생농장 반경 3km안을 위험지역으로, 반경 3km부터 10km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설정하여 닭, 오리 등 가금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의과학검역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하여 역학 조사를 실시하여, 이번 고병원성 A 발생의 원인·유입경로 등을 밝히고 앞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파악하여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취

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 사육농가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서로 만나지 말고, 농장에서 출입자를 통제하며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실시하여 줄 것과, 사육하고 있는 가금의 폐사율이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 시·군 방역상황실(1588-4060)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고병원성 A의 감염으로 인한 임상증상을 나타낸 사례는 없었으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축산물들은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2011년도 예산 14조 8,644억원 확정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도 소관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의결을 거쳐 14조 8,644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9,092억원 대비 448억원 감액 조정된 규모이며, 2010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1,906억원(1.3%) 증가했다.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삭감된 규모는 전년(1,491억원)에 비해 다소 높은 2,287억원이다.

삭감된 주요내용을 보면, 최근 쌀값 상승에 따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예산이 1,087억원 삭감되었으며, 4대강 관련 사업비(저수지 독높이기 250억원,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200억원)와 농식품전문투자펀드 출자금(500억원)이 삭감되었다.

또한 한·미 FTA 비준과 관련되는 피해보전 예산은 비준 지연에 따른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소득보전직불 150억원, 폐업지원 100억원) 조정되었다.

반면 증액된 사업(27개 사업, 1,839억원)의 내용

을 보면, 재해예방 및 안전영농 기반 구축을 위해 다목적농촌용수개발(399억원)과 수리시설 개보수(200억원) 사업비, 서산 간척지 등 대단위 농업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150억원)했으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어항건설(32억원), 검역계류장시설현대화(30억원), 내수면자원조성(10억원), 수산식품산업점단지조성(50억원), 친환경경양식기반 구축(8억원) 등을 증액 반영했다.

또한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지원(174억원)과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 지원(70억원)을 확대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산지유통활성화 자금(500억원) 및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비(77억원)를 증액했다.

그밖에, 전통발효식품산업 및 한식세계화 등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비(12억원)와 최근 병충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10억원) 등도 증액했다.

▶ 농업경영회생자금 600억원 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회생자금 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기존 채무를 장기저리자금(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바꿔 경영위기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또한 관련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지원자격 중 연체 관련 기준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리고, 비농업용 부동산(주택 제외 주택, 대지 등)이 있더라도 매도가 곤란한 농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길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조합(지역조합과 품목조합)에 신청을 해야 하며,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통계청

▶ 일부지역 가축동향조사 전화면접·우편조사로 대체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2011년 1월부터 15일까지 실시하는 2010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가 일부 지역에서 현장 조사 대신 전화면접과 우편조사로 대체됐다.

통계청은 황성과 홍천·영월 등에서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방제를 강화하면서 조사원들의 방문 조사가 차단돼 전화면접과 우편조사로 대체했다.

관세청

▶ 수입 닭고기 가격 지속적인 하락세

2010년 들어 수입 쇠고기(소갈비) 가격이 2010년 같은 기간에 비해 지속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수입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은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지난해 12월 9일 발표한 '2010년 11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동향'에 따르면 2010년

8월 이후 월별 소갈비(냉동) 수입가격은 2009년 동기에 비해 8월 31.8% 상승한 것을 비롯해 9월 25.2%, 10월 30.7%, 11월 38.5% 각각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돼지고기(삼겹살)는 계절적 수요 감소로 2010년 8월 수입가격이 2009년 8월보다 3.9% 떨어진 것을 비롯해 9월 4.2%, 10월 3.5%, 11월 5.1% 각각 하락해 2009년보다 가격이 안정된 모습이었다.

수입 닭고기(닭다리) 가격도 최대 수입국인 미국산 닭고기의 가격 안정으로 2010년 8월 2009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4% 하락한 것을 비롯해 9월 6.7%, 10월 13.9%, 11월 10.9% 각각 떨어지는 등 지속적인 하락세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동물용의약품 수출 우수업체 시상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지난해 12월 27일 검역원 대강당 1층 세미나실에서 동물용 의약품 수출 우수업체 및 자율점검 우수업체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수출 최우수업체로 (주)고려비엔피(장관상)가, 각 부문별 우수업체(검역원장상)로는 (주)백광산업(수출국 부문), (주)대성미생물연구소(수출품목 부문),

(주)삼양애니팜(수출신장 부문), 바이엘코리아(주)(수출액 부문)가 각각 선정되어 상패 및 상금을 수여받았으며, 특별상으로는 (주)씨티씨바이오(한국동물약품협회장상)가 선정되었다.

선정기준 및 절차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출국가수품목별 시장개척의 난이도, 전년대비 수출신장률 및 수출총액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되었다.

이날 이기옥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내 축산업 위축에 따른 동물약품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정부차원에서 국내 동물용 의약품등의 수출을 장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수출우수업체에 수출포상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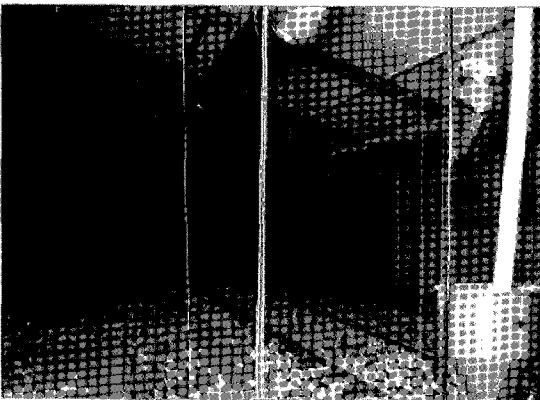
한편 같은 날 검역원에서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체계의 정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2010년 자율점검제 결과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다.

시상업체로는 우진비엔지(주)와 (주)고려비엔피가 최우수업체(장관상)로 선정되었고, 우수업체(검역원장상)로는 바이엘코리아(주), (주)중앙백신연구소, 한국화이자동물약품(주)가, 우수개선업체(검역원장상)로는 (주)엘지생명과학, (주)삼양애니팜이 각각 선정되어 상패 및 상금을 수여받았다.

또한 검역원에서는 자율점검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2011년 약사감시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2011년도 자율점검제 우수업체 선발시 자율적으로 실시한 품질관리실적 이외에 보관·유통분야 개선실적 및 행정처분 실적도 평가기준에 반영하여 종합적인 품질관리 평가제도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촌진흥청

▶ 신재생 에너지 지열 이용, 계사 난방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민승규)은 신재생 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해 계사를 난방하는 기술을 개발해 연료비는 줄이고 생산성은 좋아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립축산과학원이 전북 진안의 5만수 규모 육계농가에 설치해 2년간의 실증시험을 통해 얻어졌다.

육계는 축산농가에서 연료 소비량이 가장 많은 축종 중의 하나로, 5만수 육계를 사육할 경우 연간 4만~5만ℓ의 연료를 소모하고 연료비는 3,5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번에 실증시험을 거친 지열난방장치는 신재생 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해 지구표면의 무한한 열을 난방에 이용하는 기술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해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특히 지하수에 저장된 열을 이용하며 12~25℃의 열을 히트펌프에서 변환해 여름철에는 10~15℃로 낮추어 냉방에, 겨울철에는 45~50℃로 가온해 난방에 이용한다.

실증시험시설은 수직개방형(SCW, Standing

Column Well) 지열난방시스템으로 관정 2공을 깊이 450m로 뚫어 지하수를 끌어 올린 다음 히트펌프에서 열교환 후 사용한 지하수는 다시 지하로 보내 재순환해 지하수의 고갈 없이 난방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시설을 이용해 외부기온이 영하 10.8℃인 한겨울에도 계사 내부온도를 주령에 따라 33.6~22.7℃까지 맞출 수 있었다.

실험결과, 관행난방계사에 비해 연 평균 연료비는 80%가 절감됐고 계사 내부 유해가스 농도는 30~40% 감소됐으며 출하체중은 5%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5만수(2,691㎡)의 무창 육계사 기준으로 연간 관행난방 시 27,382ℓ의 경유가 소요됐으나 지열난방은 5,428ℓ의 연료를 소모해 80%의 연료를 절감했다.

특히 관행난방은 저온기에 계사를 밀폐시키고 환기량을 최소화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암모니아가스 농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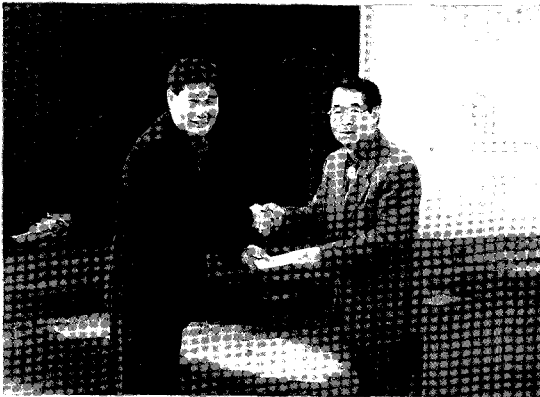
그러나 계사 지열난방 시스템은 연료비 걱정이 없어 신선한 공기를 계사 안으로 불어 넣어줌으로써 계사 안의 환경을 좋게 했으며 이로 인해 암모니아가스,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농도는 30~40% 감소했다.

이렇게 유해가스 농도가 낮아지면서 출하체중도 좋아져 관행난방 5주령시 1.9kg, 6주령시 2.38kg인데 비해 지열난방 계사는 5주령 2.0kg, 6주령 2.5kg으로 5%의 증체 개선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지열난방시스템은 설치비가 비싸고 초기에 목돈이 들어가 농가가 비용을 부담해 설치하기가 곤란하며,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에 보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앞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배상호)는 지난 한 해 동안 전 임·직원이 참여한 저소득계층 성금 모금과 8개 산하기관에서 259명 직원들이 휴일을 이용하여 27회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방역본부 전 임·직원들은 저소득 소외계층 성금 총 1천2백여만원을 모금하여 불우이웃돕기 성금 5백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천안함 유가족돕기에 2백만원, 불우동료돕기에 4백만원, 구제역방역현장 순직자 유가족 돕기에 1백만원을 후원했다.

방역본부 산하기관별 봉사활동은 각 지역에 있는 희망원, 밀알복지선교원, 사랑의집, 노인전문요양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환경정화, 서적 기증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강원도본부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춘천연탄은행에 기부금을 기탁하여 불우이웃돕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충북·전북도본부는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환경정리, 도서 기증 등을 펼쳤다.

축산물품질평가원

▶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0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4.6점으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164개 공공기관(공기업 21, 준정부기관 78, 기타 공공기관 65)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해 10~11월까지 약 2개월간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성과는 최형규 원장이 지난해 3월 취임한 이래 “고객과 함께 축산물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는 최고의 품질평가 전문기관”이 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고객중심의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해피콜센터 전담반을 설치하고 기능을 활성화하여 고객감동을 유도하고, 서비스현장 이행표준 점검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했으며, 우수 제안을 선정하여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해 왔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축산물HACCP운용 우수업체 시상식 개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지난해 12월 6일 기준원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축산물HACCP운용 우수업체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금번 우수업체 시상대상은 배합사료, 가축사육 단계(소, 돼지, 닭), 식육가공업이었으나 구제역 발생 상황을 감안, 식육가공업 분야만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진행했다.

축산물HACCP운용 우수업체는 축산물HACCP 적용 작업장들 중 그 운용·관리 수준이 우수한 업체로서 2009년도 정기심사 결과를 토대로 학계, 소비자단체, 관련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에서 현장평가를 통해 엄선했다.

그 결과 배합사료에서는 농협사료 경북지사, 가축사육단계에서는 봉이농장(소), 성지축산(돼지), 무지개농장(닭), 식육가공업에서는 (주)동원 F&B, (주) 동진H&F, 동양종합식품(주) 등 7개 업체 및 농장이 최종 선발되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 (사)한국음식조리인연합과 MOU 체결



지난해 12월 4일 '제1회 한국음식조리인 대화합의 밤'에서 한닭의 산업 촉진을 위해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는 (사)한국음식조리인연합(상임대표 강석홍)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한국음식조리인연합은 정부에서 추구하는 한식 세계화의 조류에 국가대표 닭인 한닭을 통해 우리 음식에 대한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닭의 산업 발전은 물론 토종닭을 이용한 다양한 조리·요리의 개발로 한식 세계화 및 외식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로 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이에 한국음식조리인연합에서 주관하는 한식 세계화 사업과 외국인 한식조리사 양성, 요리 경연대회 등에 토종닭을 지원하기로 했다. 